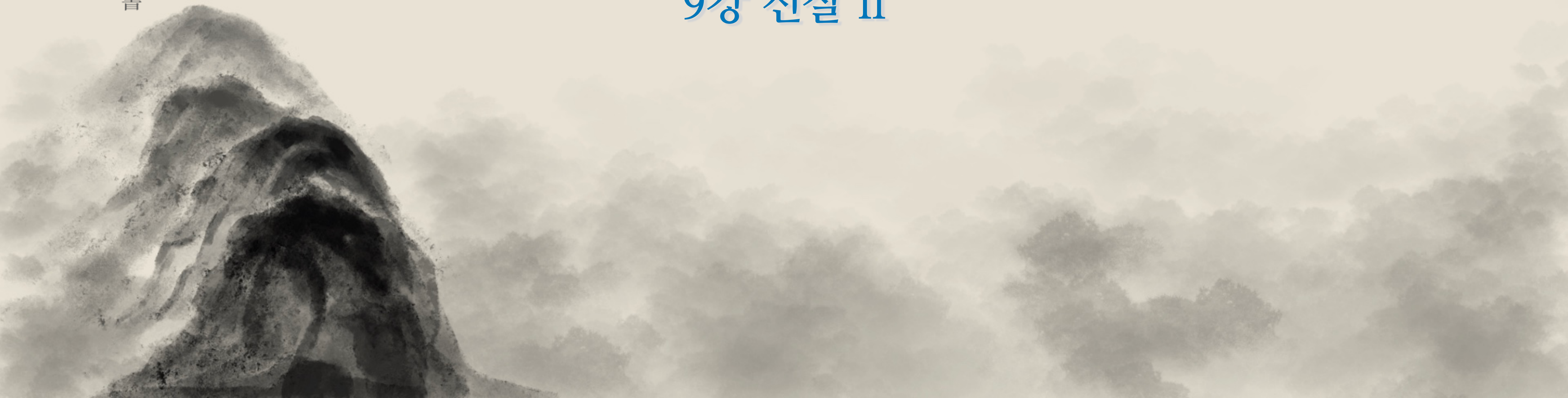


명리 고전 하이라이트 강독 I

9강 신살 II

子平粹言
李虛中命書



십악대패 < 三命通會 > 論十惡大敗

十惡者, 譬律法中人, 犯十惡重罪, 在所不赦, 大敗者, 譬兵法中與敵交戰, 大敗無一生還, 喻極凶也.

命中犯者, 當以日上見之爲是, 其餘不論.

況犯者未必皆凶, 若內有吉神相扶, 貴氣相輔, 當爲吉論.

십악이란 율법을 지켜야할 사람이 열가지 중죄를 범하여 있으니 사면되지 않음이요,
대패란 병법 중에 적과 교전하는데 크게 패하여 한명도 생존하지 못함이니
극히 흉한 것을 비유함이다.

명중에서 이를 범했다 함은 일상에서 이를 보아 십악이 된 것이다.

그 나머지는 논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범한 자 모두 흉하다 하지 않으니 만약 안으로
길신의 상부함이 있고 귀기가 상보함이 있으면 당연히 길하다고 논한다.

《元白經》曰：“十惡都來十個辰，逐年有煞用區分。”

如庚戌年見甲辰日，辛亥年見乙巳日，壬寅年見丙申日，癸巳年見丁亥日，
甲辰年見戊戌日，乙未年見乙丑日，甲戌年見庚辰日，乙亥年見辛巳日，
丙寅年見壬申日，丁巳年見癸亥日，蓋以年支干沖日支干，無祿爲忌，餘悉無妨。

〈원백경〉에 말하기를,

“십악이란 모두 열 개의 자리에서 오는데 년을 쫓아 살이 있음을 구분하여 사용한다”고 하였다.
곧 경술년이 갑진일을 보고, 신해년이 을사일을 보고, 임인년이 병신일을 보고, 계사년이 정해일을 보고,
갑진년이 무술일을 보고, 을미년이 을축일(기축일)을 보고, 갑술년이 경진일을 보고,
을해년이 신사일을 보고, 병인년이 임신일을 보고, 정사년이 계해일을 본 것이다.
대개 년의 간지가 일의 간지를 충하여 녹이 없어지니 꺼리는 것이 되었다. 이외의 것은 무방하다.

〈三命通會〉 總論諸神煞

神煞, 古有百二十名, 其說穿鑿支離, 造化恐不如是.

除羊刃, 空亡, 劫煞, 災煞, 大煞, 元辰, 勾絞, 咸池, 破碎, 羅網, 衝擊, 天空懸針, 平頭倒戈等煞命中切要者, 已備論於前矣, 茲以諸星家考驗有理, 復備敘于左.

신살은 예로부터 120개의 명칭이 있다.

그 설은 지지가 조화를 떠남을 천착하여 두려움이 꼭 그와 같지 아니함을 말한다.

양인, 공망, 겁살, 재살, 대살, 원진, 구교, 함지, 파쇄, 나망, 충격, 천공, 현침,

평두, 도과 등의 살은 명중에서 가장 절실하고 요긴한 것이다.

이외에 여러 점성가들이 고찰하여 그 이치가 있음이 징험된 것이 많으니

다시금 보충하여 아래와 같이 서술한다.

9강 신살 II

自縊煞(자액)

水溺煞(수익)

挂劍煞(괘검)

天火煞(천화)

天屠煞(천도)

天刑煞(천형)

雷霆煞(뇌정)

吞陷煞(탄함)

官符煞(관부)

病符煞(병부)

死符煞(사부)

喪吊煞(상조)

宅墓煞(택묘)

日刑煞(일형)

流血煞(유혈)

劍鋒煞(검봉)

戟鋒煞(극봉)

浮沈煞(부침)

破煞(파)

返本煞(반본)

陰陽煞(음양)

淫欲妨害煞(음욕방해)

孤鸞寡鵲煞(고란과곡)

陰陽差錯煞(음양차착)

返吟遇梟名短壽煞(반음우효명단수)

桃花紅豔煞(도화홍염)

9장 신살 II

如人命已入貴格, 緊要處帶煞, 有福神助之, 則名爲權柄;
無福神助之, 又煞氣乘旺, 遞互往還, 或刑剋本主, 下賤惡死.

又云, 一切福神所居之位, 則欲生旺, 生旺則榮貴;

一切煞神所居之位, 則欲死絕, 死絕則善終.

명이 이미 귀격에 든 경우라면 살을 두름이 긴요한 것일 수도 있다.

복신이 이를 도우니 이름하여 권병, 즉 권세를 잡은 것이라 한다.

복신의 도움이 없고 살기는 왕성함을 타서

서로 교대로 가고 오거나 본주를 형극하면 하천하고 악사한다.

또 이르기를, 일폐의 복신은 그 자리에서 곧 생왕함으로 바라니 생왕하면 영귀해진다.

일체의 살은 있는 그 자리에서 곧 사절됨을 바라니 사절되면 종래엔 아름답고 착하게 마무리된다.

9강 신살 II

又云, 凡福神欲令得旺氣, 忌有敗之者 ; 凡凶神欲令得衰氣, 忌有助之者.

又云, 相沖相破, 三合六合, 命中有之, 即求五行相得何如.

或禍中生福, 福中生禍.

如死絕復生, 空亡受破, 相剋相成, 則禍中生福, 反此, 則福中生禍.

또한 무릇 복신은 사령함에 왕기를 얻기를 바라고 패함이 있음은 꺼린다.

무릇 흉신은 사령함에 쇠기를 얻기를 바라고 이를 돕는 것이 있음을 꺼린다.

또한 상충상파, 삼합육합이 명중에 있으면 오행이 서로 어떻게 얻는가를 찾아야 한다.

화 중에 복이 생기고 복 중에 화가 생긴다.

사절의 경우 다시금 공망되고 파를 받으며 상극되면 화중생복이다.

이와 반대면 복중생화인 것이다.

9장 신살 II

《命書》云：“道途賤吏，豈無驛馬攀鞍；市井博徒，亦有三奇夾貴。”

子平云：“君子格中，也犯七煞陽刃；小人命內，亦有正印官星。”

由是觀之，吉凶神煞，不可拘定；輕重較量，要在通變。

大抵凶煞所居，於神不宜帶真鬼；剋傷本身，雖見官星，尚變爲鬼，況是真鬼。

其爲災禍，明矣！

〈명서〉에 이르기를,

“길가의 천한 관리라도 어찌 역마 반안이 없을 것이며 시정잡배라도 삼기와 험귀가 있는 법이라”고 하였다. 자평이 말하기를, “군자의 격중에도 칠살 양인이 있고 소인의 명에도 또한 정인과 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길흉신살이란 딱히 정해져 있다 할 수 없다. 경중을 비교 측량하여 변통함에 요점이 있는 것이다.

대저 흉살이 극하는 곳에 천간의 신으로 진귀로 두르는 것은 마땅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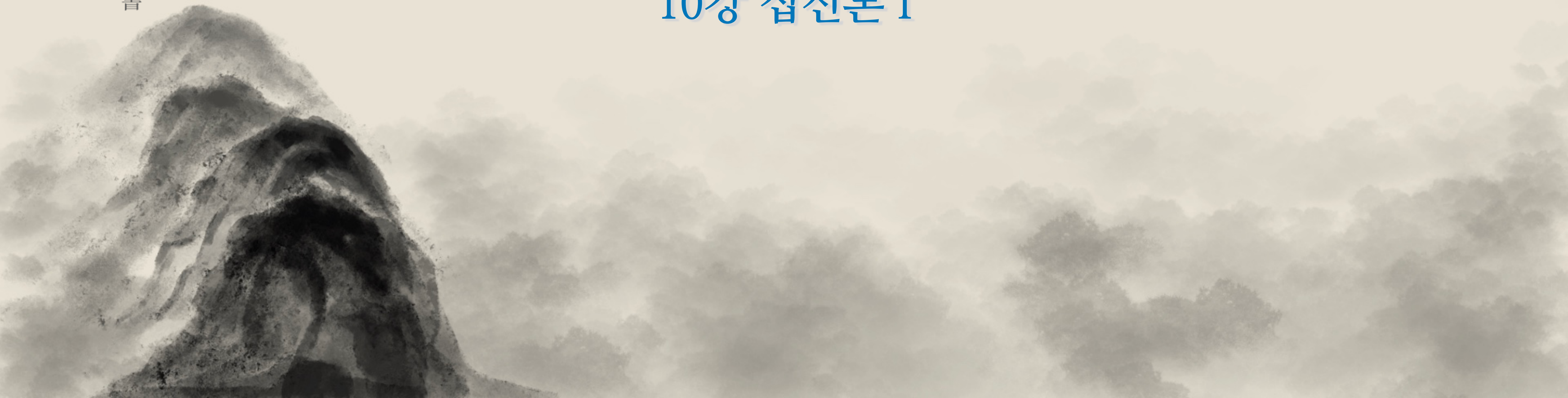
본신이 이미 극히 상했는데 오히려 관성을 보게 되면 항상 귀(鬼)로 변하는 것이다.

하물며 이를 진귀라고 하면 그 재앙과 화가 됨이란 참으로 명확한 것이다.

명리 고전 하이라이트 강독 I

10강 십신론 I

子平粹言
李虛中命書



〈 淵海子平 〉 繼善篇

人稟天地. 命屬陰陽. 生居覆載之內. 盡在五行之中.

(人得萬物之靈 乃天地之正氣方爲人)

사람은 천지의 기운을 타고나오며 명은 음양의 배합에 매여있다.

살아서는 천지 안에 머물고 생명이 다하여도 오행의 이치 가운데 있게 된다.

(인간은 만물 가운데 최고의 존엄한 신령을 얻은 존재이고

천지의 바른 기운이 배합되어 인간을 이룬다.)

欲知貴賤. 先觀月令提綱.

(月令者如人臣行君之令 掌一國之綱紀生殺 皆由之故曰提綱.)

귀천을 알려면 먼저 월령을 보아야 하니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줄기(提綱)이기 때문이다.

(일간은 임금과 같고 월령은 대신과 같아 신하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한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버리와 같으니 이런 까닭으로 제강이라 한다.

사주의 삼원을 배합하여 격국을 성립하며 재성과 관성을 기뻐한다.)

次斷吉凶. 專用日干主本. 三元要成格局. 四柱喜見財官.

그 다음으로 길흉을 판단하는데 일간이 주가 되어
삼원(천원/지원/인원)이 격국을 이루어야 하며 재와 관만을 기뻐한다.

用神不可損傷. 日主最宜健旺.

용신은 손상됨이 불가하고, 일주는 왕성함이 가장 마땅하다.

(월령에 관이 있으면 상관에 의해 손상됨이 불가하고
재가 있으면 겁재에 겁탈됨이 불가하며 인수가 있으면 재에 의해 파극됨이 불가하다.
무릇 사주에 쓰임이 되는 용신이 있으면 손상되거나 극해되면 안되는 것이다.
오직 일간이 강건하면 능히 재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年傷日干. 名爲主本不和.

年柱가 일간을 상하면 주본불화(日主와 年本이 불화하다)라고 이른다.
(가령 일간이 甲(乙)인데 年에서 庚(辛)을 보아 극을 당하면 주본불화라 한다.

이는 父子가 화목하지 못하여 아버지가 자식을 극하는 것과 같다.

年에 칠살이 있어 일간을 극하면 조종이 무력하니 양자로 가게 된다.

이때 일월시에 다시 관록과 재마가 들면 요절하게 될 것이다.

칠살이 왕성한 운에는 인성이 많이 있어 도와주면 상서롭다.)

歲月時中. 大怕官殺混雜.

연월시중에 관살혼잡한 것을 크게 두려워한다.

(연월시중에 정관이 있는데 다시 칠살을 보면 불길하다.

팔자의 배합을 보고 판단하면 화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배합이란 흠을 보는 것이니 신왕사주에 관이 약한데 살이 도우면 관살혼잡이 아니고 거관유살이 되거나 거살유관이 되어도 관살혼잡이 아니며 신왕하면 관살혼잡을 크게 꺼리지 않고 신약할 때 혼잡이 두려운 것이다.

말하자면 관살혼잡이란 여자에게 남편이 여럿 있는 것과 같고 한 나라에 임금의 둘이 있는 것과 같으니 혼란스러워 일을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다.)

取用憑於生月. 當推究於淺深. 發覺在於日時. 要消詳於強弱.

용신을 취할 때는 생월에 의지함에

마땅히 그 절기의 천심(淺深)을 따져보고 구해야 한다.

현상으로 드러남은 일과 시에 있으니 그 강약을 세밀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官星正氣. 忌見刑沖.

관성이 월지 정기인 경우 형충을 꺼린다.

時上偏財. 怕逢兄弟.

시상에 편재가 있으면 비겁의 만남을 두려워한다.

生氣印綬. 利官運畏見財鄉.

나를 생하는 기운은 인수이니 관운이 길하지만
재운을 만나는 것을 꺼린다.

七殺偏官. 喜制伏不宜太過.

칠살편관은 제복됨이 기쁘나, 제복이 태과하면 마땅치 못하다.

(壬日이 戊를 보면 칠살인데 마땅히 甲木으로 제압해야 한다.

그러나 갑을목이 너무 많으면 制伏이 태과하니 마치 소인이 군자를 제압함과 같다.

제복이 태과하면 일간이 관성에 반역하게 되어 발복하지 못한다.)

七殺無制則爲禍. 有制則純便是偏官.

칠살은 그를 제복하는 글자가 없으면 재앙이 되지만
제복되면 순해지고 편안해지니 이때는 편관이라 한다.

傷官復行官運. 不測災來. 羊刃沖合歲君. 勃然禍至.

상관격에 관운을 만나면 예측하지 못한 재앙이 도래하고

양인이 세운을 충합하면 돌발적인 재앙이 이른다.

(갑목 일간이 卯가 양인인데 세운이 酉라면 묘유충이요,

세운이 戌이라면 묘술합이 되니禍가 이른다.

만약 갑목 일간 사주에 을해가 있는데 세운이 을사운이 되면 사해충이 되니 화가 되고
또 사주에 酉丑이 있는데 세운이 乙巳운이 되면 巳酉丑金局이 되어 歲君乙木을 극하니 흉하다.)

富而且貴. 定因財旺生官.

부귀를 모두 갖춘 것은 財가 왕성하여 官을 생하는데 기인한다.

(재가 많아 관을 생하면 모름지기 신왕해야 한다.

財란 盜氣로서 일주의 기운을 빼앗아 약해지게 하니 신왕해야 한다는 것이다.

甲乙이 庚辛을 官으로 하는데 戊己가 생왕하면 관성을 생한다.

대개 先貧後富한다.)

非天則貧. 必是身衰遇鬼.

요절하지 않으면 가난한 것은 반드시 신약한 중 七殺을 만났기 때문이다.

(경에 이르기를 신왕하면 殺이 권세로 화하고,

신약하면 정관이 변하여 鬼殺이 된다하였다.

갑을생인이 巳午는 재앙이 되니 천시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때 庚申辛酉가 와서 극하면 요절하지 않으면 빈천하다.)

六壬生臨午位. 號曰祿馬同鄉.

壬日干이 午位에 임하면 녹마동향이라 일컫는다.

(壬은 丁이 財(馬)가 되고 己가 官(祿)이 되는데 丁己의 祿이 午에 있으니 午를 만나면 녹마동향이라 한 것이다.

이 격은 가을철에 생하는 것을 기뻐하니 경신금으로 갑을목을 제압하기 때문이다.

寅卯가 왕성하면 비록 문장은 뛰어나나 현달하지 못한다.

겨울철에 생하면 玄武當權格이 되니 火財를 보면 다툰다.

봄철에 갑을이 왕성하고 인묘시가 되면 흥살이 모인 것이다.

이 격은 재관이 천간에 투출하는 것을 두려워하니 세운이 극상하면 불리하기 때문이다.)

癸日坐巳宮. 乃是財官雙美.

계일간이巳宮에 앉으면 재관이 쌍으로 아름답다.

(癸는 戊가 官이 되고 丙이 財가 되는데 丙戊의 祿이巳에 있으니
재관이 쌍으로 아름답다 한 것이다.)

사주중 水局을 보는 것은 꺼리나 時에서 癸丑를 만나면 흉하지 않다.
왜인가. 巳中戊土와 丑中癸水는 합하여 癸의 財가 되기 때문이다.)

財多身弱. 正爲富屋貧人.

財가 많고 신약하면 부잣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다.

以殺化權. 正顯寒門貴客.

殺이 權으로 化하면 寒門(초라한 집안)에 나서 귀인이 된다.
(편관이 정관으로 화하는 것인데 예컨대 丙은 壬이 殺이 되나 巳午火,
土가 많으면 壬이 丙일간을 해롭게 하지 못하고 정관으로 화하니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출세한다.)

登科甲第. 官星臨無破之宮.

과거에 합격하여 공직에 출사하는 것은
관성이 파극이 없기 때문이다.

(정기 정관이 사주에 상관, 칠살이 없으면 파극,
혼잡이 없으니 官旺運에 등과급제한다.)

壬 癸 癸 壬
子 未 丑 午

納粟秦名. 財庫居生旺之地.

납속진명(재물을 바치고 관직을 받음)은 財庫가 생왕지를 얻음이다.
(墓庫格을 말하는 것으로 墓庫에 재관이 있으면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財旺運에는 고가 열리니 좋다. 단 소년에는 발복하지 못한다.
경에 이르기를, 只怕有物壓之. 若行財旺運. 或開庫이라 하였으니,
즉 두려운 것은 창고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는 십신이니
만약 재성이 왕성한운으로 흐르면 창고를 열게 된다 이를 납속진명이라 한다.)

有氣者爲庫開之則取用. 無氣者爲墓雖開之亦無用矣.

기가 있으면고가 되니 그것을 열면 능히 (재관)을 취할 수 있지만
기가 없으면 무덤이 되니 비록 열었다고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官貴太甚. 僭臨旺處必傾.

관성이 태왕하면 관왕운에 필히 기울어진다.

印綬被傷. 尙若榮華不久.

인수가 손상되면 만약 영화가 있더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有官有印. 無破作廊廟之材.

관성도 있고 인성도 있으며 파괴되지 않으면 나라의 인재가 된다.

(雜氣(辰戌丑未)가 官印을 암장한 것을 말한다.

귀곡자가 말하기를 罫(辰)중에 을목이 있고 魁(戌)중에 신금이 암장하여 있으니 이는 잡기재관인수라고 하였다.)

丙 甲 辛 丙
寅 辰 丑 寅

無官無印. 有格乃朝廷之用.

관성도 없고 인성도 없으면서 격을 이루면 조정의 쓰임이 있다.
(재관인수가 잡기에 암장하고 있으면 귀하게 보는데
격국을 이루었으면 일체 재관인수가 없어야 부귀한 명조가 된다.)

庚 戊 壬 己
申 子 申 未

名標金榜. 須還身旺逢官. 得佐聖君. 貴在沖官逢合.

급제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신왕하고 관성을 만났기 때문이요,
성군을 보좌함에는 沖官逢合에 貴가 있다.

(신왕한테 정기관성이 있고 관왕운이 오면 필히 등과급제한다.
사주중에 비천녹마가 있으면서 충관합록의 격국이 되면 문신으로서 극품의 벼슬을 얻는다.
정관을 충하는 것은 경자, 임자, 신해, 계해일이다.)

非格非局. 見之焉得爲奇. 身弱遇官. 得後徒然費力.

격도 이루지 못하고 국도 이루지 못하면 재관을 보나 어찌 기특함이 있으리요. 신약한데 관을 만나면 영화가 있어도 힘을 허비할 뿐이다.

(사주중 용신재관을 손상하면 파격이 되는데 이런 명조는 기묘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일간이 쇠약한데 관성이 있으면 영화가 오래가지 못한다.)

小人命內. 亦有正印官星.

소인의 사주에도 정인이나 관성이 있다.

(사주에 정인관성이 있어도 상관정재에 의해 손상되었거나 합으로 기반이 되었으면 쓸 수 없어 오히려 흉한 명조가 되니 소인이 되는 것이다.)

君子格中. 也犯七殺羊刃.

군자의 격중에도 칠살과 양인이 있다.

(사주에 칠살도 制化되면 관성이 되고, 양인도 형충이 없으면 貴가 되니
편관도 평범한 집안에서 발복하고, 양인도 변방 시골에서 일어나서 장군과
재상이 되니 어찌 군자라 아니하겠는가. 양인과 칠살은 주륙의 권세가 있다.)

爲人好殺. 羊刃必犯於偏官.

살생을 좋아하는 것은 양인이 칠살을 범했기 때문이다.
(양인과 칠살이 모두 기신으로 흉포하면 살생을 좋아한다.
만약 정관을 만나 양인이 제압되면 길하다.)

素食慈心. 印綬遂逢於天德.

素食을 하며 자비로운 것은 인수가 천덕을 만났음이다.

(사주 중에 흉신악살을 범하였어도 천월이덕을 만나면 구제되어
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인수는 본래 자비로운 신이고 또 천월이덕이 도우면 주는 자비롭고
식사가 감소하다.)

生平少病. 日主高强.

평생 병이 적은 것은 일주가 강한 때문이다.

(신왕하고 재관도 왕성하여 중화가 되면 평생토록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하며
수명도 길다.)

一世安然. 財命有氣.

일생을 편안한 것은 재와 명이 힘이 있기 때문이다.

(재란 처재마를 말한다. 재가 왕성한데 신왕하면 재복을 누리면서 편안히 즐긴다.
갑생인이 진술축미월에 생하고 겁재가 없으면 재성이 힘이 있는 것이다.)

官刑不犯. 印綬天德同宮.

관재형벌을 받지 않는 것은 인수와 천덕이 동궁하기 때문이다.
(인수가 일주를 돕는데 천월덕이 다시 돕는다면 일생 官刑을 만나지 않는다.)

少樂多憂. 蓋因日主自弱.

즐거움이 적고 근심이 많은 것은 대개 일주가 약하기 때문이다.
(일주가 無氣하고 운로가 쇠약한 운이 왔을 때이고 失時하고 살왕운일때도 그러하다.
偏多하면(편관, 편인, 편재) 남의 부림을 받는 奴僕등의 하천격이 된다.
고신과숙이 오묘에 임하여도 일생 근심이 많다.)

身强殺淺. 假殺爲權.

신강하고 살이 쇠약하면 살을 관으로 삼는다.

(가령 병술일이 임진을 보는데 4,5월이면 병화가 왕지를 얻어 신왕하고
임수칠살은 쇠약하니 살을 貴權으로 삼는다.)

殺重身輕. 終身有損.

살이 많고 신약하면 평생 손해가 있다.

衰則變官爲鬼. 旺則化鬼爲官.

일주가 쇠약하면 관도 살이 되고, 신왕하면 살도 관이 된다.
(일주가 쇠약하면 관성이 있어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관성도 살과 같이 해로운 역할을 하고,
일주가 신왕하면 살이 있어도 일주에 항복하니
살도 관과 같이 이로운 역할을 하여 부귀명이 된다.)

月生日干. 運行不喜財鄉.

월이 일간을 생하면 財運을 꺼린다.

(월생일간이란 인수를 말한다.

재가 와서 인수를 파괴하는 것을 꺼리니 만약 재운이 되면 貪財壞印이 된다.)

日主無依. 却喜運行財地.

일주가 태왕하여 의지할 바가 없으면 財運을 기뻐한다.
(갑을생이 봄철에 태어났는데 사주에 재관이 없으면 無依라 한다.
만약 진술축미운이면 토재가 되는데 가히 발복한다.)

時歸日祿. 生平不喜官星.

時에 일주의 祿이 있으면 평생 관성을 기뻐하지 않는다.

(사주중 日祿이 時에 있으면 관성을 두려워하니 관성이 時의 祿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벽옥가에 말하기를,

일록이 시에 있음이 가장 묘한데 만일 관살을 보면 시록을 박탈하게 된다.)

歲傷日干. 有禍必輕. 日犯歲君. 災殃必重.

歲君이 일간을 극하면 화가 가법지만 일간이 세군을 범하면 재앙이 중하다.

(태세가 일간을 극하면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니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 그 화가 가법지만 일간이 세군(연간)을 극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극하는 것이니 그 죄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신하가 임금을 극하는 것과도 같으니 반드시 화를 초래한다.)

五行有救. 其年反必爲財. 四柱無情. 故論名爲剋歲.

사주오행이 歲君을 구함(통관)이 있으면 반대로 재물을 얻는다.

사주가 無情(구함이 없음)하므로 이름을 剋歲라 하는 것이다.

(일간이 세군을 범하더라도 일주에 식신이 있어 통관하면 화가 줄어든다.

따라서 도리어 재물을 얻는다고 한 것이다.

식신이 없으면 편재를 극하여 세군을 범하니禍가 이른다.)

庚辛來傷甲乙. 丙丁先見無危.

경신금이 갑을목을 극하는데 병정을 먼저 보면 위태롭지 않다.
(庚辛金이 甲乙木을 극하더라도 丙丁을 보면 庚辛金을 제압하니
甲乙木이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자식이 나를 원수(칠살)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같다.)

庚得壬男制丙. 天作長年. 甲以乙妹妻庚. 凶爲吉兆.

庚金이 壬水아들을 얻어서 丙火를 제압하면(식신이 제살하면) 수명이 길고,

甲이 乙木누이를 庚金에게 시집보내면 흉이 변하여 길하게 된다.

(경금은 병화를 가장 두려워하는 바 임수가 병화를 제압하면 도리어 길하게 된다.

갑을이 경금을 꺼리는데

을목누이가 경금과 합하여 처가 되면 갑목은 흉이 길로 변하게 된다.)

天元雖旺. 若無依倚是常人. 日主太柔. 縱遇財官爲寒士.

천원일주가 왕성하더라도 의지할 바(재관)가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다.

일주가 태약하면 비록 재관을 만나도 평범한 선비가 될 뿐이다.

(벽옥가에 말하기를, 천원일주가 태왕한테 연월시에 재관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빈한하거나 스님도인이 되거나 고독한 사람이요, 일주가 태약한테 재관이 많으면 반대로 재앙이 되고 재관을 감당치 못하므로 신고하고 행색이 초라하다.)

女人無殺. 帶二德作兩代之封.

여명에 殺이 없고 천덕월덕이 있으면 兩代之 녹봉을 받는다.

(여명은 편관칠살을 꺼리는 바

살이 없고 천월덕이 모두 있으면 반드시 녹봉을 받을 것이요.

자비롭고 온후하며 너그로우니 덕이 있다.

諸殺을 제압하여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한다.)

男命身強. 遇三奇爲一品之貴.

남명이 신강한데 삼기귀인을 만나면 일품의 귀인이 된다.

(시결에 이르기를 일주가 고강하고 부귀함은 재관인수를 모두 얻었기 때문이다.
甲이 辛巳癸를 만나면 財官印綬를 모두 얻은 것이고, 乙이 戊庚壬을 만나거나,
丙이 癸辛乙을 만나거나, 丁이 壬庚甲을 만나거나 戊가 癸乙丁을 만나거나,
己가 壬甲丙을 만나서 파괴됨이 없으면 重臣으로 이름이 金殿에 오른다.)

甲逢己而生旺. 定懷中正之心.

甲이 己를 만나 합이 되어 생왕하면 中正之心을 가지고 있다.

(시결에 갑이 기토를 만나 생왕하면 부귀영화를 가히 헤아릴 수 있고 항상 중정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 귀인을 만날 것이다.

갑은 동방목으로 仁을 주재하고 기토는 중앙의 후중한 기운으로서 信을 주재하니 갑기합이 되고 생왕하면 충후하고 정직한 인품이다.)

丁遇壬而太過. 必犯淫訛之亂.

정이 임을 만나 태과하면 반드시 음란하고 삿됨이 있을 것이다.

(정일간이 임수를 많이 만나 태과하면 陰은 고독한데 陽은 많으니 淫訛하게 된다.

남명이라면 주색으로 패가망신할 것이고 여명은 私通하고 음란하다.

정화가 임수를 많이 보면 制伏이 태과하므로 음란하다는 것이다.)

丙臨申位. 逢陽水難獲延年.

丙이 申位에 임하고 陽水(壬)를 만나면 수명이 길기가 어렵다.

(시결에 이르기를 丙이 申위에 임하면 연기없는 불인데

陽水를 만나면 命이 견고하지 못하다.

만약 土가 와서 구조하면 복이 있고 수명이 길다.)

己入亥宮. 見陰木終爲損壽.

己土가 亥宮에 들어가고 陰木(乙)을 보면 수명을 손상한다.
(기해일생이 을목운으로 가면 해묘미운이니 주는 요절한다.
시결에 이르기를 己는 强土인데 雙魚를 보고 陰木이 임해 있고
사주에 금의 구조가 없으면 수명이 손상된다.)

庚值寅而遇丙. 生旺無危.

庚이 寅位에 앉고 丙을 만나면 생왕이라야 위태롭지 않다.

(경인일주가 병화를 만나면 만약 경금이 많으면 무방하다.

시결에 말하기를 경이 인위에 앉으면 관살의 록이 당권한 것인데

병화를 여러번 만나면 경금을 제압하게 된다.

신왕하고 살이 쇠약하면 오히려 가히 제압할 수 있으니 귀살이 권세로 화한다.)

乙遇巳而見辛. 身衰有禍.

乙이巳에 앉았는데 辛金을 만나고 신약하면 禍가 따른다.
(을사일주가 신금이 있으면 신약살왕하니 화가 된다는 것이다.)

乙逢庚旺. 常存仁義之風.

乙이 庚을 만났는데 庚이 왕성하면 인의의 풍도가 있다.

(을일이 신월에 생하는 것과 같으니 이격은 인의가 있는 사람이다.

시결에 말하기를 을이 경왕을 만나면 관성이니 이를 만나면 재상의 품격인데
오행에 충파가 없으면 인의가 있을 뿐 아니라 변방을 제압하게 될 것이다.)

丙合辛生. 鎮掌威權之職.

丙이辛을 합하면 威權의 직책을 관장한다.

(丙日이 申酉月에 생하거나 辛日이 巳月에 생하면 이런 격국은
主가 權柄을 잡는 명이다.

병신합이 있는 사람은 천하지 않으니 명리를 얻을 것이요
아니면 병권을 장악하는 威權이 있을 것이다.)

一木重逢火位. 名爲氣散之文.

하나의 木이 火를 거듭 만난다면 기산지문(氣가 흩어지는 文)이라 이름한다.

(목일주가 병정화를 많이 만나면 설기가 심하다.

시결에 이르기를 목이 능히 화를 생하면 목이 창달하여 木火通明이라 하니 등용할 것이나 일목이 화위를 거듭 만나면 종신토록 설기하여 문장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獨水三犯庚辛. 號曰體全之象.

하나의 水가 庚辛金 三位를 만나면 體全之象이라 한다.

(壬日生이 庚申辛酉를 다시 보면 인수가 生身하므로 主는 부귀하다.

시결에 이르기를 獨水가 경신금 삼위를 보면 金이 능히 水를 생하고 水가 동체가 되므로 명리가 쌍전하고 복록이 풍부하다. 主는 대부귀한다.)

水歸冬旺. 生平樂自無憂.

水가 겨울철에 생하면 평생 즐겁고 근심이 없다.

(목이 봄철에, 화가 여름에, 금이 가을에, 수가 겨울에, 토가 진술축미월에 생하면 모두 절기내이므로 주는 수명이 길고, 평생 병이 적고 근심이 없다.)

木向春生. 處世安然必壽.

목이 봄철에 생하면 처세가 安然하고 수명이 길다.

(목일주가 봄철에 생하고 사주에 寅卯를 거둬 만나면 성품이 온후하고 자비심이 많다.

조정에 쓰임이 있다. 재관인식을 용신으로 하는데 신왕운으로 가면 오히려 궁핍하고

요절할 것이니 정밀하게 참구해야 할 것이다.

마땅히 중용으로서 감명에 쓰임이 되는 용신을 구하라.)

金弱遇火炎之地. 血疾無疑.

금이 약한데 화염지를 만나면 혈관계통의 질병이 의심없다.

(금은 폐를 주관하고 폐는 심장의 화개이니 금이 만약 화에 의해 극충을 당하면 반드시 주색으로 질병을 얻고 폐와 심장이 상하니 토혈과 폐병이 생긴다.)

土虛逢木旺之鄉. 脾傷定論.

토일주가 虛한데 목왕운으로 가면 비위脾胃가 상한다.
(토는 脾胃를 주관하니 만약 목이 와서 극하면 필히
비장과 배의 寒病의 증상이 있다.)

筋痛骨痛. 蓋因木被金傷.

근육과 뼈의 통증 및 신경통은 대개 목일주가 약한데 금의 극을 받은 때문이다.
(시결에 이르기를 목일주가 쇠약한데 운이 금운이 되며
태세에 사유축금국이 임하면 눈병, 풍사병이 있다.)

眼昏目暗. 必是火遭水剋.

눈이 어두움은 화가 수의 극을 받은 때문이다.

(간은 목에 속하고 심장은 화에 속하고 신장은 수에 속한다.
수가 화를 극하면 상생의 道가 없으니 눈이 어두운 질병이 된다.)

下元冷疾. 必是水值火傷.

아랫배에 냉질이 있는 것은 필시 수가 화에 의해 손상된 때문이다.

(신장은 북방수이고 심장은 남방화인데
腎水가 상승하고 心火가 하강하면 水火既濟가 되고,
만약 상하가 교접하지 않으면 냉질의 증세가 있다.)

金逢艮而遇土. 名爲還魂.

金이 艮土(辰)를 만나면 還魂이라 한다.

(경신금이 인묘에서 기를 받고 토에서 생금이 되어 환혼이라 한다.)

水入巽而見金. 名爲不絶.

水가 巽方에서 金을 만나면 不絶이라 한다.

(壬水가 巳에서 氣를 받으면 水가 金을 얻어 다시 水를 생하니 고로 不絶이라 한다.)

土臨卯位. 夫中年便作灰心. 金遇火鄉. 雖少壯必然挫志.

土가 卯에 임하면 중년에 갑자기 실패가 되고 金이 火運으로 향하면
비록 소년에 건장해도 필연코 뜻을 꺾는다.
(무토일생이 卯에서 목욕지가 되니 비록 중년에 진퇴하더라도
반드시 그 뜻을 꺾게 된다.)

金木交差刑戰. 仁義俱無. 水火遞互相傷. 是非日有.

金과 木이 交戰하면 인의가 모두 없고 수화가 서로 상하면 시비가 날로 생긴다.

(賦에 말하기를 불인불의한 것은 경신과 갑을이 다투는 것이다.

시비가 날로 생기는 것은 임계와 병정이 서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운운. 수는 지혜이고 화는 예절이니 지혜와 예의가 어긋나기 때문이다.)

木從水養. 水盛而木則漂流.

木이 水를 쫓아 자라나 水가 태왕하면 木이 표류한다.

金賴土生. 土厚而金遭埋沒.

금이 토에 의뢰해서 생하나 토가 너무 많으면 금이 매몰된다.

是以五行不可偏枯. 務稟中和之氣. 更須絕慮忘思. 鑑命無差誤矣.

이런고로 오행은 편고한 것이 불가하니 중화의 기운을 얻어야 함이며
생각을 끊고 모든 분별을 잊고 감명한다면 실수가 없을 것이다.